

나에게 교환학생이란 항상 내 마음속 강한 목표 중 하나였다. 중학교 시절 영국에서 1년 동안 살면서 학교를 다녀본 경험 이후에는, 항상 외국 생활을 그리워하는 나였기 때문이다. 가족들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서 더 오랜 기간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나도 모르게 반복했고, 나 자신은 그러한 경험을 쌓기 위해 나 자신을 가꾸며 적당한 기회를 항상 알아보았다. 그러던 내게, 공대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학생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학기간동안 미리 토플 점수를 맞춰놓았다. 덕분에 영어권 나라인 호주 퍼스에서 교환학기가 2018년 2월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서의 출국 길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분명 영어권 나라에서 스스로 살아보는 게 목표였던 나였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처음 가보는 나라에 혼자 입국한다는 점은 마음 한편의 걱정 반을 떨쳐내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호주 도착 후 기숙사로 가는 길에 탔던 택시 기사님, 기숙사에서 첫날 만난 친구들의 친절하고 유쾌한 모습들은 하루 만에 남은 걱정 반마저 설렘으로 바꿔놓았다.

내가 교환학생을 호주로 지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영어권 국가인 호주에서 앞으로 내게 매우 중요한 리스닝과 스피킹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고, 둘째는 살면서 쉽게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를 여행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목표였다. 첫날 결정된 나의 기숙사 룸메 들은 미국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 두 명과 호주 Bunbury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 두 명이였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교환학생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이었다. 서로 다른 발음과 서로 다른 언어권, 문화권에서 자라온 우리들이었지만 이는 우리의 우정을 키우는 데나, 언어소통에나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가서 수영과 서핑을 하고, 시내에서 쇼핑을 하고, 파티에서 술 한잔 하고, 사막에서 샌드보딩을 하고, 여러 로드트립을 다녀오는 동안 영어 실력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특히 기숙사 거실에서 매일 가족같이 생활하며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맞지 않는 어법의 문장을 구사하는 내 영어를 오히려 더 열심히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던 룸메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꼈다.

약 5개월간의 교환 기간 중 한 달은 호주에서 여행을 하며 보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돌아다녔다. 첫 번째 여행은 룸메들과의 호주 남서부 여행이었다. 룸메 Emily와 Laura의 고향 Bunbury에 함께 내려가 집도 방문하고, 3일간 캠핑도 했다. 친구들의 집에 방문한 점은 너무나 소중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Emily의 집은 드넓은 대지 가운데 외롭게 위치한 아담한 주택이었다. 그 넓은 마당에서 뛰어 노는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친구 아버님께서 권한 맥주한잔을 즐겼다. 인적이 드문 곳도, 대저택도 아니었지만 행복이 묻어나오는 아버님과 아버님의 친구의 모습은 그저 아름다웠다. 내가 바라본 호주 사람들의 모습은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모습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룸메들과의 로드트립 후에도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한 호주 북서부로의 1주일간의 로드트립, 호주 남부로의 1주일간의 로드트립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드넓은 대지 속에서 추억들을 쌓아나갔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호주 중부(울룰루)로의 여행을 통해 사막을 열심히 걸어 다니며 호주 원주민(Aborigines)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호주 동부에 위치한 시드니, 멜버른 여행을 통하여 발달된 도시의 모습까지 경험하며 짧은 기간 동안 내가 교환학생으로 있던 나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뿌듯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동안 내게 가장 소중히 남은 것은 영어 실력의 상승도, 여행의 기억들도 아니다. 물론 이 두 가지도 너무나 소중한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호주에서 한 학기 동안 함께 생활하고 추억을 쌓은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이야말로 이번 교환학생 생활의 꽃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호주, 영국,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홍콩, 멕시코, 말레이시아,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맥주 한잔 하며 추억을 되돌아보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공대 학생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말해주고 싶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내 대학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을 소중한 학기는 다름 아닌 호주에서의 교환 학생 학기이다.